

클릭!! 전통사찰, 뭐가 궁금하세요?

1 전통사찰 통합DB 부재



2 불교문화콘텐츠 구축



3 표준화된 불교문화 정보제공



조계종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 착수

전국 877개 사찰 연혁, 이미지 등 동영상 DB화 체계적 문화보존과 해외홍보 기대

전통사찰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통사찰 종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기획 실 산하에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은 기술개발팀 6명, 콘텐츠 개발팀 2명, 행정관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 25일 서울 견지동에 사무실을 열었다.

전통사찰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전국의 877개 전통사찰의 연혁, 전설, 전각 등 유·무형문화자료와 스님의 수행, 의복과 같은 사찰의 문화를 비롯해 사찰용어 및 불교인물, 불교행사 등 불교의 모든 정보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자료로 DB화하는 것이다.

구축된 자료는 온라인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로 제공된다. 이와함께 정보문화재관리시스템과 전통사찰포털사이트 개발도 이루어진다. 총 사업비는 34억 4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17억 2천만원은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조계종이 자체예산과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1차년도인 올해는 62개의 전통사찰 정보와 사찰용어 2천건, 불교인물 625건, 전통사찰문화 30건 등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정보문화재관리시스템 개발, 전통사찰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2, 3차년도에는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와 시스템 개선에 전력하며 영어와 일어 사이트 오픈과 문화재 관련 커뮤니티구축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들에게 전통사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사찰 문화의 보존과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세정스님은 "전통사찰 종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877개의 전통사찰의 모든 정보와 사찰용어 4천500건, 불교인물 2천625건 등의 자료가 DB화되며 사찰의 일상, 의복, 음식 등 불교의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며 "이번 작업을 통해 사찰문화의 지식정보화 근간을 마련하고 불교계 문화 정보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6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5 불교문화 체험유도



4 불교문화유산의 유용한 정보생산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삼발라선 (<http://www.shambhalasun.com>)



세계적인 불교 시사주간지 <삼발라선>(美)의 모든 기사와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삼발라선'은 라인(<http://www.shambhalasun.com>)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매주 각계 인사들을 만나 네티즌들에게 안내하는 금주의 온라인 코너에는 최근 방한해 걷기 수행을 널리 알린 티벳스님 기사가 실려 있다. <삼발라선>지는 티베트의 정신지도자 달라이 라마, 마안파의 민주운동가 아웅산 수지, 미국의 불교 시인 알렌 긴스버그, 미국의 여성운동가 벨 후크 등의 주요 인물들을 커버스토리로 실어왔으며 예술·사회·정치·국제·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룬 시사잡지이다.

IT다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한글.kr' 방식의 한글 도메인 등록 서비스 실시가 하반기로 다가오면서 한글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글관련 도메인은 베리사의 다국어 도메인 한글 버전인 '한글.com' 방식의 서비스만 실시되고 있고 등록된 도메인은 35만개로 전체 도메인의 20%정도다.

그러나 '한글.kr' 방식의 한글 도메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글도메인 비중이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포화상태에 있는 도메인 등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콘텐츠대회' 개최
캐릭터, 모바일 등 전부분 망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국제전시회인 '2003 디지털콘텐츠 국제전시회(DICON 2003)'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반, 모바일, 에듀테인먼트 등의 디지털콘텐츠 전 부분을 망라해 전시되는 이번 DICON 2003은 기업 전시회, 국제 콘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깨닫는 법

①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오도록 하는 것 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람 곁으로 다가서는 것이 빠르며, 내일 사랑하려는 것 보다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십시오.

능도
해인사수련동문회계사관

②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세상,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나오는 이 세상, 하지만 아직은 마음 따뜻한 이들이 있기에 살아볼만한 세상이 지났다고 싫습니다.

진정 나 자신부터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어떠한 것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남을수 있기에.

최상열
조계사중고등학교동문모임계사관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금강선원 (www.kungangnet.com)



◇이희경 간사와 한동수 이사, 자원봉사자 최승용(오른쪽 뒷줄부터)씨가 금강선원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관한 실무자 회의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총재 활안스님은 범불교적 생활불교 수행지도 및 호국불교 운동을 통한 정보세계 구현을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됐다.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금강선원은 신하에 2년 과정의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과 나란타삼장불학원, 복지사업을 전담하는 금강복지재단 기로 의집, 포교사법사회 등 초종과 범불교 운동에 뜻을 함께 하는 60여

금강선원은 사찰 전산화를 구축하기 위해 종무소에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정보 인프라 구축도 함께 마쳤다. 종무소에서 운영중인 3대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ADSL 서비스를 신청, 인터넷 접속도 자유롭다. 지난해 12월 부서는 홈페이지(www.kungangnet.com)를 개설해 사이버 포교도 시작했다.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현재 내부

정보인프라 구축 업무·포교 '척척'

네트워크 구성 외국사찰과도 연계

개의 사찰과 단체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큰 사찰이다.

금강선원은 산하 단체와 통신 대학 수강자가 늘면서 종무관리를 수작업으로 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금강선원은 워드프로그래밍 훈민정음을 이용해 종무행정 가운데 신도관리부문을 전산화 했다. 지금은 2달에 한번 신도들에게 수천통씩 발행하는 사보 <금강법보>의 라벨출력이나 기타 작업들을 컴퓨터를 이용해 하루만에 처리할 정도로 종무 전산화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적으로 개편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정식 오픈 행사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도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몽골 고려사 등 해외에 개설한 사찰들과도 연계할 강화할 방침이다.

이희경 간사는 "앞으로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 축적해온 오디오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강의를 캡처더로 촬영해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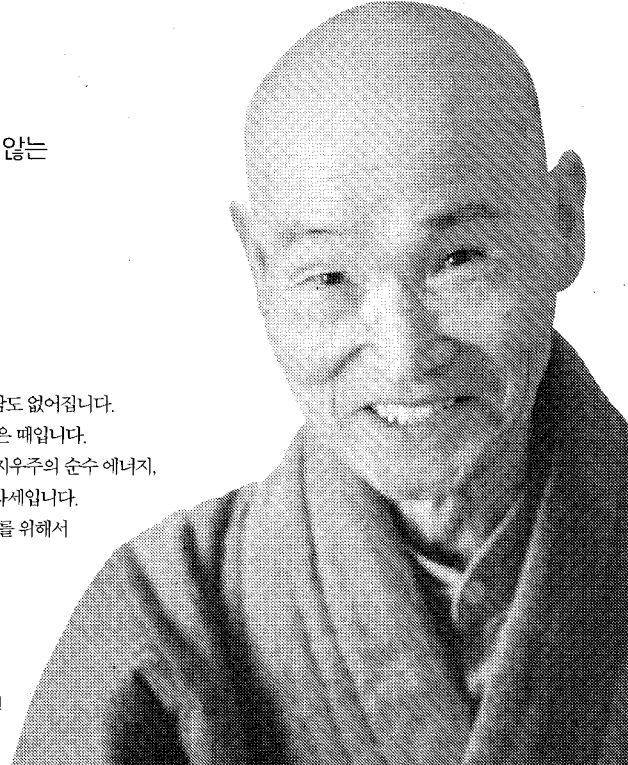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경향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우리 시대 큰스님, 청화스님의 맑고 깨끗한 법문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 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계행(戒行)의 삶…… 불교계의 큰어른 청화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

참선을 할려면 내가 없고 내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애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만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다. 나다. 좋다. 곱다. 시미들 다 떠나서 원지우주의 순수 예너지.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염불도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날 모두 좋은 사람' 중에서(40쪽)

● 청화스님 말씀 | 신국판 | 269쪽(컬러 화보 포함) | 값 9,000원



가장 행복한 공부

— 청화스님 말씀

● 묘엄스님 구술, 윤창학 역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청담스님의 딸, 성철스님의 제자인 묘엄스님 이야기

회색 교무신

맑은 결망하나, 기워 입은 옷 한 벌,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진 것의 전부였던 시절. 묘엄스님이 추억하는 이야기 속에는 맑은 가난을 즐기던 청빈한 수행자들의 삶이 가득합니다.